타이어 기술력 광주·전남이 최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10회·곡성공장 11회 연속 품질 우수기업 선정

역시 타이어 제조 등 화학분야에선 광주·전남의 기술력이 최고였다. 정부가 선정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10회, 곡성공장은 11회 연속 선정되는 등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품질경쟁력이 뛰어난 전국 58개 기업(공장)을 올해의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화학분야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 9개사 ▲전기전자 분야에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등 11개사 ▲기계·금속 분야에서 한국OSG 등 20개사 ▲공기업 분야에서 한전KPS 등 13개사 등이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개사, 중소기업 25개사 등이다.

특히 포뮬러3(F3) 타이어 등 세계 최고수준의 레이싱 타이어와 항공타이어 생산에 앞장서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10회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도 11회 연속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적극적인 품질 경영으로 최첨단 타이어 기술의 결정체인 포뮬러3 레이싱 타이어와 연비 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해 세계수준의 타이어 생산기지임을 입증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남들이 못 만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기업 경영 원칙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외 금호폴리켐은 10회, 금호피엔비화학은 9회, 금호미쓰이화학은 8회 연속으로 뽑히는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품질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품질시스템, 전략 및 관리시스템, 기업문화 및 인재육성 등 1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74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선정한다.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품질향상·원가절감·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고객 지향적인 품질경영을 정착시킨 기업을 선정해왔다.

따라서 오랫동안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보증하는 셈이다.

한편,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시상식은 1997년 처음 열렸으며 올해는 13회째로, 10일 기술표준원에서 열린다. 지식경제부는 단순한 시상 행사에 그치지 않고 품질경쟁력 우수기업들에 대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가전로봇 육성을 책임질 광주 가전로봇지원센터 개소식이 9일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가전로봇산업 불붙었다

테크노파크에 지원센터 개소

광주를 가전로봇 메카로 키우는 허브 역할을 할 광주가전로봇지원센터(센터장 조연술)가 9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16면〉

로봇센터는 오는 2011년까지 총 28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기반 구축, 센터 건립 등 가전로봇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센터는 1단계로 1만65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센터 건물을 세워, 여기에 기업제품전시관·창업 후 보육지원공간·장비실·기업 상담실 등을 갖춘다.

특히 로봇의 성능 및 제작에 필요한 핵심 장비 80여종을 들여와 기업 등의 첨단 로봇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2단계로 2012년부터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한다. 센터는 향후 광주에 밀집한 삼성광주전자 등 국내 최대의 생활가전 집적 기반을 바탕으로 가전로봇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 모델로 주도해 나가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연술 센터장은 "지역 가전산업을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4대강 착공'… 철강·자전거·건설주 급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공사 착공을 하루 앞두고 관련주(株)들이 동반 급등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련주로 분류되는 강판, 후판 및 1차 철강제조업체 NI스틸이 전 거래일보다 345원(14.87%) 오른 2천665원에 거래를 마친 것을 비롯해 토목공사 전문업체 삼호개발(14.88%)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코스닥시장에서도 홈센타와 동신건설, 삼호개발, 신천개발, 울트라건설 등이 장 시작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하고 나서 장 마감 때까지 급등세를 지켜냈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 4대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에 자전거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탔다. 삼천리자전거(4.12%), 참좋은레져(5.62%), 에이모션(14.65%)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본공사 착공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업 수혜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날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6일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1차 턴키공사인 15개 보의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대강에 들어설 15개 보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하고, 실시 설계는 올해 말에 마무리된다. 총 1조4천67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테마주 대부분이 실제 사업과 연관성이 희박하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조상 꿈' 꿨다면 복권사라

1등 당첨자 절반이 꿈꿔

복권 1등 당첨자 중 절반가량은 조상 꿈을 꿨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등에 당첨된 294명 가운데 103명을 대상으로 복권 당첨 전에 꾼 꿈을 문의한 결과 '조상과 관련된 꿈을 꿨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7%에 달했다.

길몽으로 알려진 '물 또는 불 꿈'을 꾼 당첨자가 10%였으며 '신체 관련 꿈'(8%), '동물 꿈'(5%), '대통령 꿈'(5%) 순이었다.

기타 꿈의 경우 사망하거나 보석이 등장하는 전통적인 꿈 외에도 레드카펫을 밟는 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등 당첨자들이 복권을 사게 된 계기는 '평소 꾸준히 구입'(29%)과 '좋은 꿈을 꿔서'(22%)가 많았으며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16%), '재미삼아'(15%), '좋은 일이 생겨서'(8%)가 뒤를 이었다. 1등 당첨자의 평균 복권 구입 횟수는 '1주일에 1번 이상'이 54%로 비교적 꾸준히 사야 당첨 가능성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한 달에 1~2번 이상'(21%), '2~3일에 1번 이상'(13%) 순이었다.

/연합뉴스

OCI 창립 50돌

글로벌 화학기업 성장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지난 8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수영 OCI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본사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OCI를 지속가능 가치창조기업 세계 1위로 선정하는 등 우리 회사가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사진〉

OCI는 지난 1959년 설립된 동양화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내 처음으로 소다회 공장을 건설해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기초가 된 알칼리 공업을 일으켰고, 무기화학, 석유·석탄화학,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OCI는 지난해 매출 2조1천198억원, 경상이익 4천73억원을 기록해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 유기농 식품 총집합

광주 국제식품산업전 12일~15일 DJ센터서

'2009 광주국제식품산업전'이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식품산업전에는 모두 15개국에서 240개 업체가 참가해 460개 부스에 식품 및 식품기기, 천일염, 식품첨가물, 주류 등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며 호남 각 지역의 특산물과 농수산물, 전통식품 등이 전시된다.

또 폴란드 육류협회관, 호주관(건강/유기농식품), 세계국수요리관, 모로코(올리브오일), 페루(유기농/자연식품), 터키 케밥, 미국·유럽 커피머신, 오븐 등 해외 각 국의 유명 식품과 기기 등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식품안전광주포럼, HACCP 기술세미나와 워크숍, 식품공업협회 위생교육, 음식점경영컨설팅교육(음식업광주지회), 외식창업세미나, 외식업CEO초청 특강, 폴란드 농식품 산업 세미나, 천일염 심포지엄 등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프로그램도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국내외 바이어와 참가업체들을 위한 수출상담회, 국내유통기업 초청구매상담회, 단체급식관련 구매상담회 등도 이어진다.

한편 이번 식품산업전과 동시에 개최되는 2009 소금박람회는 '미네랄의 보고, 전라남도 햇볕 소금'을 부제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국산 천일염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 천일염 및 소금 관련 기업 35개사가 대거 참가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식품산업전은 올해로 5회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업영업 전문설계사

삼성화재 200명 모집

삼성화재는 9일 일반보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문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여기에 참여할 기업영업 전문 설계사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RC(리스크 상담사)로 불리는 기업영업 전문 설계사는 주로 중소기업과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화재나 폭발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보험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모집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장필수기자 bungy@